

버나디나·최형우 '빛바랜 홈런'

KIA, LG에 5-6 끝내기 패배 주말 1승2패

개막 후 4승 4패...내일 문학서 SK와 격돌



‘호랑이 군단’이 2018시즌 첫 원정경기에서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다.

KIA 타이거즈가 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9회말 가르시아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으면서 5-6으로 패했다. 지난 30일 LG와의 첫 대결에서 4-3 진땀승을 거뒀던 KIA는 31일 양현종이 6.1이닝 6실점으로 흔들리면서 4-6 패를 기록했었다. 그리고 주말 3연전 마지막 대결에서는 9회 2사 만루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루징 시리즈로 첫 원정 경기를 마쳤다.

1회 양팀의 선두타자가 첫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며 공세에 나섰다.

점수를 기록한 쪽은 LG였다. 1회 KIA 선두타자 이명기가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버나디나가 포수 파울 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났다. 김주찬의 헛스윙 삼진에 이어 이명기의 도루 실패가 나오면서 KIA의 득점 기회가 무산된다.

1회말 LG 선두타자 안익훈이 유격수 내야안타로 출루한 뒤 김현수의 2루타가 이어지면서 무사 2-3루. 박용택의 2루수 앞 땅볼 때 3루 주자 안익훈이 홈을 밟았고, 가르시아의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0-2가 됐다.

잠잠하던 양쪽 타선이 홈런을 주고받으면서 2라운드 공방에 나섰다.

0-2로 뒤진 5회초 선두타자로 나온 KIA 최형우가 좌측 담장을 넘겼다. 6회에는 버나디나의 홈런쇼가 펼쳐졌다. 2사 2루에서 타석에 선 버나디나가 중앙 담장을 강타하면서 3-2 역전극을 연출했다.

6회말 이번에는 LG 홈런이 터져 나왔다. 연속 안타로 6회를 출발한 팻이 양

▲잠실전적(1일)

KIA	000	012	200	5
LG	200	003	001	6

△승리투수= 정찬현(1승 1패) △패전투수= 김세현(1패 1세) △홈런= 최형우 2호(5회1점) 버나디나 2호(6회2점·이상 KIA) 양석환 2호(6회3점·LG)

석환에게 역전 스리런을 허용하고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LG의 리드는 오래 가지 못했다. 7회초 안치홍이 선두타자 안타로 출루하면서 분위기가 띄웠다. 이범호의 3루수 땅볼 때 2루 주자에 이어 타자 주자의 아웃까지 선언됐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1루 아웃이 세이프로 번복됐다. 김민식의 안타로 1사 1-2루, 김선빈의 볼넷으로 만루가 채워졌다. 이명기의 땅볼 때 3루에 있던 이범호가 홈에 들어왔고, 6회 동점포를 쏘아 올렸던 버나디나가 다시 한번 승부를 5-5 원점으로 돌리는 적시타를 기록했다.

9회 승리를 향한 마지막 3라운드가 전개됐다.

9회초 2사에서 김선빈이 볼넷을 골라낸 뒤 이명기의 우전 안타가 이어졌다. 그리고 버나디나의 볼넷까지 더해 만루를 채웠지만 김주찬이 우익수 플라이로 돌아서면서 승기가 LG에 넘어갔다.

9회말 KIA가 임창용에서 김세현으로 투수를 교체했지만 대타 이전공과의 승부에서 스트레이트 볼넷이 나왔다. 안익훈의 희생 번트 1사 2루, KIA가 김현수를 고의사구로 내보낸 뒤 박용택을 포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위기를 넘기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르시아의 타구가 좌익 선상으로 흐르면서 끝내기 주자가 홈을 밟았다.

4승 4패로 5할 승률을 그친 KIA는 3일 문학으로 건너가 SK 와이번스와 주중 3연전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6회초 2사 2루에 KIA 버나디나가 역전 투런홈런을 때리고 홈에서 최형우와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女컬링 세계 6위로 상승

한국 여자컬링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랭킹을 8위에서 6위로 끌어 올렸다.

1일 세계컬링연맹에 따르면 한국 여자컬링은 세계랭킹 포인트 783점으로 전체 6위에 올라 있다.

기존 8위에서 2계단 오른 순위다. 김은정 스킵과 김영미, 김선영, 김경애, 김초희에 김민정 감독까지 모두 김씨여서 눈길을 끄는 '팀 김' 대표팀은 지난 2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로 많은 포인트를 쌓았다.

세계컬링연맹은 올림픽 금메달 국가에 480점, 은메달 국가에 400점의 랭킹 포인트를 부여한다.

대표팀은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5위를 차지해 50점을 추가했다.

세계선수권 금메달 국가는 240점, 은메달 국가는 200점, 동메달 국가는 180점을 받고, 12위까지는 50점을 가져간다.

평창동계올림픽 결승에서 한국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건 스웨덴이 여자컬링 세계랭킹 1위(1천84점)를 차지했다. 스웨덴은 세계선수권에서도 은메달을 차지하면서 기존 5위에서 4계단이나 뛰어올랐다.

'최강'으로 군림하던 캐나다도 2위(1천72점)로 내려갔다. 캐나다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예선 탈락했지만, 세계선수권 금메달로 만회했다.

/연합뉴스

男컬링 세계선수권 첫 승

남자컬링 대표팀이 2018 세계남자컬링선수권대회 첫 경기에서 승리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대표팀은 1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남자컬링선수권대회 예선 1차전에서 네덜란드를 7-4로 꺾었다.

7엔드까지는 3-4로 밀렸다.

8엔드에서 4-4 동점을 맞춘 대표팀은 9엔드 2점, 10엔드 1점을 연속으로 스틸하며 네덜란드를 제압했다.

이 대회에는 김창민 스킵, 성세현, 김민찬, 이기복, 오은수 등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대표팀이 그대로 나왔다.

남자컬링 대표팀의 세계선수권 출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표팀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컬링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해 이번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따냈다.

이 대회에는 총 13개 팀이 출전했고, 예선을 거쳐 6개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예선 1·2위 팀은 준결승에 직행하고, 3위 팀은 6위 팀, 4위 팀은 5위 팀과 각각 한 차례 결정전을 벌여 준결승에 오른다.

/연합뉴스

'홈런공장' kt의 변신

고졸 신인 강백호 4호 등 팀 홈런 20개 1위

프로야구 '만년 꼴찌' kt wiz가 폭탄 타선으로 변신, 홈런의 힘으로 거침없는 상승세에 올라섰다.

kt는 1일 경기도 수원 홈 경기에서 홈런 4방을 앞세워 두산 베어스를 9-4로 제압했다.

1-4로 밀리던 5회 말, 박경수와 이해창의 연타석 홈런이 기록됐다.

박경수는 두산 선발투수 세스 후랭코프의 직구를, 이해창은 슬라이더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 밀레이를 앞세워 점수를 1점 차로 좁혔다. 4-4로 맞선 7회 말에는 멜 로하스 주니어가 이영하를 상대로 가운데 담장을 때리는 역전 2점포를 쏘아 올렸다.

이해창과 로하스는 이를 연속 홈런을 기록했다.

이해창과 로하스는 전날 경기에서 8회 말 '한 이닝 만루홈런 2개'라는 KBO리그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이는 kt의 '괴물 신인' 강백호가 3점 홈런으로 타선을 깨운 덕분이었다. kt는 전날 두산에 0-8로 지다가 20-8로 뒤집는 화끈한 역전승을 거뒀다.

kt는 이날 경기까지 시즌 팀 홈런 20개를 기록하며 이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작년 kt는 팀 홈런 119개로 이 부문에서 10개 구단 중 9위에 그쳤다.

강백호와 로하스가 4홈런으로 팀 내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고, 박경수와 황재균이 3홈런으로 그 뒤를 쫓고 있

다. 이해창과 유한준도 2홈런으로 거꾸로 군단을 이르고 있다.

홈런으로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kt의 전반적인 팀 분위기도 활기를 띠고 있다. 3년 연속 꼴찌에 그쳤던 kt는 '탈꼴찌' 의지를 불태우며 올 시즌을 시작했다.

시즌 초반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던 패배 의식에서도 수월하게 탈출할 수 있다.

아무리 경기에서 지고 있더라도 'kt는 이길 때가 있는 팀'이라는 인식이 생기기만 상대도 더는 kt를 만만하게 볼 수가 없다.

kt도 언제든지 점수를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뒷심을 기대할 수 있다. 김진욱 kt 감독도 무시무시해져 타선에 웃음이 절로 나온다.

김 감독은 "장타가 많아진 하나의 이유를 말할 수가 없다"면서도 넥센에서 영입한 이지풍 트레이닝 코치의 지도와 선수들의 노력이 복합적으로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이지풍 코치의 영입 효과도 분명히 있다. 몸을 만들고 좋은 휴식을 취하며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수들 자체도 달라졌다. 캠프에서 발사 각도를 좋게 하는 훈련에 힘썼다. 여러 면에서 같이 이뤄진 효과"라고 말했다.

특히 "장타는 여러 선수에게서 골고루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가 향상된 효과"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전 다저스, 2패 뒤 시즌 첫 승

30년 만에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 우승을 향해 첫발을 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2패 후 시즌 첫 승리를 거뒀다.

다저스는 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18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투수 마에다 겐타의 호투를 앞세워 5-0으로 이겼다.

지난달 30~31일 샌프란시스코에 이를 내리 0-1로 패한 다저스는 이날 팀 영봉승으로 설욕했다.

마에다는 5이닝 동안 삼진 10개를 속아 내며 산발 5안타만 주고 무실점으로 역투해 시즌 첫 승리를 따냈다.

다저스는 1회 크리스 테일러의 볼넷과 엔리케 에르난데스의 중월 2루타로 잡은 무사 2, 3루에서 야시엘 푸이그의 희생플라이를 추가하며 승부를 갈랐다.

이어 "선수들 자체도 달라졌다. 캠프에서 발사 각도를 좋게 하는 훈련에 힘썼다. 여러 면에서 같이 이뤄진 효과"라고 말했다.

특히 "장타는 여러 선수에게서 골고루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가 향상된 효과"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패를 당한 두 경기에서 다저스의 팀 안타는 6개, 1개에 각각 그쳤다.

다저스는 2일 오전 9시 37분에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와의 개막 4연전 마지막 경기에 좌완 선발 투수 리치 힐을 올려 연승에 도전한다.

다저스 5선발인 류현진(31)은 3일 오전 10시 40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열리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와의 방문 경기에 시즌 첫 선발 등판한다.



서석초 수완센트럴병원장배 우승...소년체전 광주 대표로

서석초가 전국소년체전 광주 대표로 참가한다.

서석초는 지난 30일 분랑리리조트에서 끝난 제5회 수완센트럴병원장배 초등학교 야구대회 겸 제47회 전국소년체전 예선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우승팀 학강초를 포함해 7개 야구팀이 참가해 리그전으로 대결을 벌였다.

서석초는 첫째 날 서림초를 13-1 이긴 후, 둘째 날 학강초도 13-4로 꺾었다. 그리고 송정동초와의 대결에서도 18-14로 승리하며 3연승으로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에서 만난 화정초를 6-3으로 꺾은 뒤 송정동초와의 경기에서도 승리하며

전승으로 우승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서석초는 오는 5월 충북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 대표 자격을 얻었다.

◇수상내역

▲우승: 서석초 ▲준우승: 송정동초 ▲최우수선수상: 김찬민(서석초) ▲우수투수상: 김훈민(서석초) ▲타격상: 고도영(14타수 13안타·0.928·서석초) ▲최다도루상: 서중훈(10개·송정동초) ▲최다타점상: 고도영(19타점·서석초) ▲감독상: 박성훈(송정동초) ▲미기상: 김민제(송정동초) ▲감독상: 양윤희(서석초) ▲지도상: 김미옥(서석초 교장)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